

중1-2
국어
지학사

2026 중1-2 국어 지학사 | 2(1) 단어의 짜임과 새말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단어의 짜임과 새말」에서는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주어진 문장이나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정확히 분석하는 문제, 단어의 개념과 짜임을 이해하는 문제, 복합어를 합성어와 파생어로 분류하고 그 예시를 파악하는 문제 등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태소, 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용언의 어간처럼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예외적인 경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근과 접사를 구별하여 합성어와 파생어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해하고 단어를 분류하는 문제, 새말이 나타난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등이 출제될 수 있으니, 최근 자주 사용되는 새말의 예시와 그 형성 원리를 연결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단어의 뜻만 암기하는 것을 넘어, 그 단어가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보기>를 형태소로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과나무가 여기 있다.

- ① ‘사과나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 ‘사과’와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② 총 4개의 단어와 6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자립 형태소는 ‘사과’, ‘나무’, ‘여기’ 3개이며, 의존 형태소도 3개이다.
- ④ 실질 형태소는 ‘사과’, ‘나무’, ‘여기’, ‘있-’ 4개이다.
- ⑤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주격 조사

‘가’ 하나뿐이다.

2.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과나무’는 어근 ‘사과’에 접사 ‘-나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②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단어가 아니다.
- ③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존 명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 ④ ‘우리 학교’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우리’는 ‘학교’를 꾸며주는 관형사이다.
- ⑤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앞말에 붙여 쓰지만,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인정된다.

3.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형태소에 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늘이 매우 푸르다.

- ① 자립 형태소는 ‘하늘’, ‘매우’ 두 개이며,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② 의존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실질 형태소인 것은 용언의 어간 ‘푸르-’이다.
- ③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며, <보기>에서는 ‘-이’, ‘-다’가 해당한다.
- ④ 실질 형태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다.
- ⑤ ‘-이’와 ‘-다’는 둘 다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4.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가 나에게 작은 책을 주었다.

- ① 단어는 총 5개이고, 이 중 조사는 ‘가’, ‘에게’, ‘을’ 3개이다.
- ② 형태소는 총 11개이고, 이 중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는 7개이다.
- ③ ‘작은’은 ‘작-’과 ‘-은’으로 나뉘며, ‘작-’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자립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 ④ ‘주었다’는 ‘주-’, ‘-었-’, ‘-다’로 분석되며, 이들은 모두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 ⑤ 문장을 이루는 형태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는 ‘그, 나, 책, 주-’ 4개이다.

5. 다음은 형태소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에 들어갈 말이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준		형태소의 종류	예시
홀로 쓰일 수 있나?	예	자립 형태소	㉠
	아니오	의존 형태소	㉡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	예	실질 형태소	㉢
	아니오	형식 형태소	㉣

- ① ㉠: '하늘', '바다' 등 명사나 '새', '헌'과 같은 관형사가 해당한다.
- ② ㉡: 용언의 어간 '먹-', 어미 '-다', 조사 '이/가' 등이 해당한다.
- ③ ㉢: '하늘'처럼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도 있고, '잡-'처럼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도 있다.
- ④ ㉣: 조사, 어미, 접사가 해당하며, 이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에 속한다.
- ⑤ ㉣: '읽-'과 같이 용언의 어간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6. 각 단어의 밑줄 친 형태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잠꾸러기: ‘잠’은 어근이지만, 접미사 ‘-꾸러기’와 결합하여 자립성을 잃었으므로 의존 형태소로 변한다.
- ② 읽히다: ‘읽-’은 동사의 어간으로 실질 형태소이며,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히-’는 형식 형태소이다.
- ③ 새파랗다: ‘새-’는 ‘파랗다’의 의미를 강조하는 접두사이므로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④ 슬기롭다: ‘슬기’는 실질 형태소이며, ‘-롭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더하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 ⑤ 우리들: ‘우리’는 자립 형태소이고, 복수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들’ 역시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7. <보기>의 단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부채 ㉡ 부채질 ㉢ 부채춤

- ① ㉡의 ‘-질’은 어근의 뜻을 더하는 접사로, ‘맨손’의 ‘맨-’과 기능 및 위치가 동일하다.
- ② ㉢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눅푸르다’와 그 형성 방식이 동일하다.
- ③ ㉡과 ㉢은 모두 어근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한 복합어이지만, 실질 형태소의 수는 동일하다.
- ④ ‘잠꾸러기’는 ㉠과 짜임새가 같고, ‘돌다리’는 ㉡과 짜임새가 같다.
- ⑤ ㉠~㉢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모두 ‘부채’로 동일하다.

8.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단일어와 복합어로 분류되며,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 ③ 합성어는 단일어의 한 종류이다.
- ④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구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 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구성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9. <보기>의 단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보름달 ㉡ 덧버선 ㉢ 고구마

- ① ㉠은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② ㉡은 어근 '버선'에 접두사 '덧-'이 결합해 이루어졌다.
- ③ ㉢은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④ '덧밥'은 단어의 짜임이 ㉠과 같다.
- ⑤ '선생님'은 단어의 짜임이 ㉡과 같다.

10. 다음 단어들을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눈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군밤, 돌다리, 물고기, 덧니, 손발

	파생어	합성어
①	군밤	돌다리, 물고기, 덧니, 손발
②	군밤, 돌다리	물고기, 덧니, 손발
③	군밤, 덧니	돌다리, 물고기, 손발
④	돌다리, 손발	군밤, 물고기, 덧니
⑤	돌다리, 물고기, 손발	군밤, 덧니

11. 밑줄 친 부분이 접사인 것은?

- ① 낮잡
- ② 딸꼭질
- ③ 달리기
- ④ 날고기
- ⑤ 꽃발

12. <보기>의 문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는 풀밭을 힘껏 달렸다.

- ① 단어로 나누면 '우리/는/풀밭/을/힘껏/달렸다.'이다.
- ② '풀밭'은 어근 두 개가 결합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③ '달렸다'는 '달리-', '-었-', '-다'의 세 형태소로 나뉘며, 이 중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는 '달리-'뿐이다.
- ④ 이 문장에는 파생어가 없다.
- ⑤ '달렸다'를 자립성 유무에 따라 형태소를 나누면 '달리-', '-었-', '-다' 모두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이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주격 조사 '가'와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문장을 끝맺는 어말 어미 '-다' 두 개이다. 따라서 형식 형태소가 하나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사과나무'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인 어근 '사과'와 어근 '나무'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가 맞다.

② 단어는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로 '사과나무', '-가', '여기', '있다' 4개이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사과/나무/-가/여기/있-/다' 6개가 맞다.

③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사과', '나무', '여기' 3개이다. 다른 형태소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조사 '가', 어간 '있-', 어미 '-다' 3개이다.

④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는 '사과', '나무', '여기', '있-' 4개가 맞다.

2. 정답 ⑤

조사는 홀로 쓰일 수는 없어서 자립성은 없지만,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문법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 '철수가', '사과를'에서 '-가', '-를'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① '사과나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 '사과'와 어근 '나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아니다.

②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문법적으로 단어로 인정된다. 따라서 '조사는 예외적으로 단어가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렸다.

③ 의존 명사(예: 것, 수, 뿐)는 의미적으로는 앞말에 의존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명사이므로 단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 할 수 있다, 아는 것)

④ '우리 학교'는 두 개의 단어인 것은 맞으나, '우리'는 '나, 너, 그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문장 성분상 관형어의 역할을 하지만 품

사는 대명사이다.

3. 정답 ④

실질 형태소가 모두 자립 형태소인 것은 아니다. <보기>의 용언 어간 '푸르-'는 '푸르다'라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어미 '-다'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으므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하늘'과 '매우'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며, 각각 고유한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이다. 맞는 설명이다.

② '푸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질 형태소이지만, 어미와 결합해야 하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맞는 설명이다.

③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를 말하며 문법적 기능을 한다. <보기>에서 조사 '이'와 어미 '-다'가 이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다.

⑤ 조사 '이'와 어미 '-다'는 각각 체언과 어간 뒤에 붙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맞는 설명이다.

4. 정답 ③

'작은'은 형용사 '작다'의 활용형이다. 이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간 '작-'과 관형사형 어미 '-은'으로 분석된다. 어간 '작-'은 의미상 실질 형태소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어미가 결합해야 하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① 이 문장의 단어는 '그, 가, 나, 에게, 작은, 책, 을, 주었다'로 총 8개이다.

② 형태소는 '그/가/나/에게/작-/은/책/을/주-/었-/다'로 총 11개이다. 이 중 의존 형태소는 '가, 에게, 작-, -은, 을, 주-, -었-, -다'로 총 8개이다.

④ '주었다'의 '주-'는 '주다'라는 행위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었-'과 '-다'는 형식 형태소이다.

⑤ 실질 형태소는 '그, 나, 작-, 책, 주-'로 총 5개이다. 형용사 어간 '작-'도 실질 형태소에 포함된다.

5. 정답 ⑤

용언의 어간 '읽-'은 '읽다'라는 행위의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므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은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의

예시가 들어가야 할 자리이므로, '읽-'은 적절하지 않다. 형식 형태소의 예시로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조사 '을/를', 어미 '-다', 접사 '뜻-' 등이 와야 한다.

① ㉠은 자립 형태소의 예시이다. 명사 '하늘', '바다'나 관형사 '새', '흰' 등은 문장에서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의 올바른 예시이다.

② ㉡은 의존 형태소의 예시이다. 용언의 어간('먹-'), 어미('-다'), 조사('이/가') 등은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야만 쓰일 수 있으므로 의존 형태소의 올바른 예시이다.

③ ㉢은 실질 형태소의 예시이다. 실질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와는 다른 기준이므로, '하늘'과 같이 홀로 쓰일 수 있는 실질 형태소도 있고, 용언의 어간 '잡-'과 같이 홀로 쓰일 수 없는 실질 형태소도 있다. 이는 실질 형태소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④ ㉣은 형식 형태소의 예시이다.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어미, 접사는 모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며, 이들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 의존 형태소에 속한다. 이는 형식 형태소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6. [정답] ②

'읽히다'는 '읽다'의 어근 '읽-'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파생어 동사이다. 어근이자 어간인 '읽-'은 '읽다'라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피동 접미사 '-히-'는 문법적 기능(피동)을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① 어근 '잠'은 그 자체로 자립 형태소이며, 다른 형태소와 결합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③ 접두사 '새-'는 반드시 어근에 붙어야만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④ '-롭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⑤ 접미사 '-들'은 복수의 의미를 더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며, '학생들', '사람들'처럼 항상 명사 뒤에 붙어 쓰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7. [정답] ⑤

㉠ '부채'는 그 자체가 중심 의미이며, ㉡ '부채질'은 어근 '부채'에 접사 '-질'이 붙은 것이고, ㉢ '부채춤'은 어근 '부채'에 어근 '춤'이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세 단어 모두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부분은 '부채'라고 할 수 있다.

① ㉡의 '-질'은 어근 뒤에 붙는 접미사이고, '맨손'의 '맨-'은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이다. 기능은 유사하나 결합하는 위치가 다르다.

② ㉢ '부채춤'은 '명사(부채) + 명사(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반면 '높푸르다'는 '형용사 어간(높-) + 형용사 어간(푸르-)'이 바로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로, 내부 구성 요소와 결합 방식이 다르다.

③ ㉣ '부채질'의 실질 형태소는 '부채' 1개이다. ㉢ '부채춤'의 실질 형태소는 '부채', '춤' 2개이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의 수가 다르다.

④ '잠꾸러기'는 어근 '잠'에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과 짜임새가 같다. 또한 '돌다리'는 어근 '돌'과 '다리'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과 짜임새가 같다.

8. [정답] ②

단어는 구조에 따라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와 둘 이상의 형태소로 된 복합어로 나뉘며, 복합어는 다시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와 어근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로 분류된다.

① '하늘', '바다'와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도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복합어의 한 종류이므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와는 구분된다.

④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구성된 단어는 파생어이다.

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구성된 단어는 합성어이다.

9. [정답] ④

'덮밥'은 용언 어간 '덮-'에 명사 '밥'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① '보름달'은 실질 형태소(어근) '보름'과 '달'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덧버선'은 어근 '버선' 앞에 '겹쳐 신는'의 의미

를 더하는 접두사 ‘덧-’이 결합한 파생어가 맞다.

- ③ ‘고구마’는 더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어근(실질 형태소)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⑤ ‘햇사과’는 접두사 ‘햇-’과 어근 ‘사과’가 결합한 파생어로 ㉠과 유형이 같다.

10. **정답** ③

군밤은 접사 ‘군-’에 ‘밤’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덧니는 접사 ‘덧-’에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나머지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①, ②, ④, ⑤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눈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②

‘딸꾹질’의 ‘-질’은 접사이다.

- ① ‘잠’은 어근이다.
- ③ ‘달리-’는 어근이다.
- ④ ‘고기’는 어근이다.
- ⑤ ‘꽃’은 어근이다.

12. **정답** ⑤

‘달리-’, ‘-었-’, ‘-다’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①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눈 것으로 적절하다.
- ② ‘풀밭’은 어근 ‘풀’과 어근 ‘밭’이 결합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③ 실질 형태소는 ‘달리-’뿐이고, ‘-었-’과 ‘-다’는 문법 형태소이다.
- ④ 이 문장에는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없다.